

## 2. 엘살바도르(El Salvador)의 정치·경제 동향

### 가. 일반개황

일 반	위 치	중미 과테말라 아래, 태평양 연안
	면 적	21천 km <sup>2</sup> (한반도의 1/10)
	기 후	열대(해안), 아열대(고지대)
	인 구	6.2백만 명(2009)
	수 도	San Salvador(1.6 백만 명)
	민 족	메스티조(90%), 백인(9%), 원주민(1%)
	언 어	스페인어
정 치	종 교	가톨릭(57%), 개신교(21%), 기타(22%)
	독 립 일	1821. 9. 15(스페인)
	정 부 형 태	대통령중심제(단일공화제)
	국 가 원 수	Mauricio Funes 대통령
	의 회	단원제(84석)
	주 요 정 당	민족해방전선(FMLN), 국민공화연합(ARENA)
	국제기구가입	UN, IMF, IFC, IDA, OAS, CACM, WTO, IDB, IBRD 등
경 제	G D P	212억 달러(2009)
	1인당 GDP	3,419달러(2009)
	화폐단위	Colón(C)
	회계연도	1. 1 ~ 12. 31
	산업구조(2009)	농림수산업 11.1%, 제조업 28.2%, 서비스업 60.7%
	주요수출품	커피, 설탕, 직물, 철강제품 등
	주요수입품	원유, 산업기계, 자동차, 통신기기 등
제	주요부존자원	수력자원, 농산자원(커피, 설탕)
	경제적강점	농산자원 풍부, DR-CAFTA 수혜국
	경제적약점	정치·사회 불안, 광물자원 빈약

## 나. 약사

- 1821년 9월 15일 : 독립 선언
- 1822년 : 멕시코와 합병
- 1824년 : 중미연방의 일원으로 멕시코로부터 독립
- 1841년 : 엘살바도르공화국 성립
- 1872~98년 : 대토지소유제 확산으로 무토지 농민들의 유혈봉기 빈발, 대지주를 비롯한 보수적 지배층인 소위 ‘14가문’ 생성
- 1932년 : 사회주의자 파라분도 마르티(Farabundo Marti)가 이끄는 대규모 농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약 3만 명이 희생된 대학살(La Matanza) 발생
- 1969년 : 온두라스와의 ‘축구전쟁’ 발생
- 1981~92년 : 게릴라단체인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(FMLN)의 대정부 공세로 12년간의 내전 돌입
- 1992년 1월 : 정부와 FMLN 평화협정 서명으로 내전 종식
- 1994년 :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공화연합(ARENA) 재집권, FMLN은 제도권 정당으로 참여하여 제1야당 지위 확보
- 1999년 : ARENA의 플로레스(Francisco Flores) 대통령 취임
- 2004년 : 국민공화연합(ARENA)의 사카(Antonio Saca) 대통령 취임, ARENA는 4회 연속 집권에 성공

— 2009년 :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(FMNL)의 마우리시오 푸네스(Mauricio Funes) 대통령 취임.

## 다. 경제동향

### (1) 국내경제

단위 :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 <sup>f</sup>
경 제 성 장 른	5.3	4.2	3.4	-3.5	1.5
재 정 수 지 / G D P	-2.9	-1.9	-3.1	-5.5	-4.8
소비자물가상승률(연말)	4.9	4.9	5.5	-0.2	2.5

#### □ 경제성장세 회복 예상

- 2006~08년 동안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, 해외근로자 송금유입 증대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, DR-CAFTA 및 중미 4개국 관세동맹 진전에 따른 투자 증가에 힘입어 4~5%의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함,
- 그러나 2009년에는 주요 수출품인 국제농산물 가격 급락 및 해외 근로자 송금유입 급감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실질경제가 마이너스 성장(-3.5%)을 기록하였음.
- 금년 들어서도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과 송금 유입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금년 경제성장률은 1.5%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□ 물가수준 크게 하락

-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4년 4%대에서 2008년에는 7%대까지 크게 상승
- 2009년에는 유가 급락과 수입품 가격의 하락, 공공 에너지요금 인하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0.6%를 기록
- 2010년에는 유가 및 식료품 등 주요 수입품의 가격 회복세 전환으로 물가상승률이 2.5%로 상승할 전망이다.

□ 재정적자 크게 확대

-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 시행, 경제성장 및 세수개혁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 등으로 2004~07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를 2% 수준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했었음.
-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관세 등 주요 세수가 감소한 반면, 재정지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08~09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GDP의 -3.1%와 -5.5%로 증가함.
- 금년 들어서는 1월부터 이자소득, 주류, 신차 등에 대한 세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이 시행됨에 따라 연간 GDP의 0.7%(약 1.75억 달러)에 이르는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, 경기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(2) 국제경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670	-1,183	-1,595	-417	-613
경상수지/GDP	-3.6	-5.8	-7.2	-2.0	-2.8
상 품 수 지	-3,533	-4,105	-4,394	-2,845	-3,302
수 출	3,759	4,039	4,611	3,861	4,303
수 입	7,291	8,144	9,004	6,706	-7,605
외 환 보 유 액	1,814	2,110	2,443	2,868	2,614
총 외 채 잔 액	9,219	8,809	8,846	9,566	10,323
총외채/GDP	49.4	43.2	40.0	45.2	47.2
D. S. R.	12.8	11.0	8.3	10.5	10.3

□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크게 개선

- 대미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마길라 부문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,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음.
- 고유가로 인한 수입 증가로 2008년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43억 달러에 달하였으나, GDP의 17%에 달하는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7%인 15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음.
- 2009년에는 내수의 급격한 위축으로 수입이 전년 대비 22억 달러 (-25%) 이상 급감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됨.

- 2010년 수출입 모두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내수 회복 지연으로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. 해외근로자 송금액도 전년 대비 2008년 수준을 회복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소폭 악화된 2.8%를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달러공용화 제도 성공적으로 정착

- 엘살바도르는 2001년 1월부터 미 달러를 자국통화(C8.75:US\$1)와 함께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공용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. 이로 인해 물가수준이 안정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, 동시에 수출경쟁력, 특히 미국 시장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어 수출 확대에 약점이 되고 있음.

□ 친시장 경제정책 적극 추진

-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장려를 위해 외국인투자보장촉진법, 수출 활성화법, 자유무역지대 및 마킬라지역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음.

□ DR-CAFTA 체결로 수출 및 FDI 유입 크게 증가

- 미국과 중미간의 FTA(DR-CAFTA) 보세가공무역업인 마킬라 산업의 발달과 함께 관련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엘살바도르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.
- 1990~2000년 연평균 1.5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 연중 유입액은 DR-CAFTA가 발효된 2005년 5억, 2007년에는 사상 최대인 15억 달러를 기록함.

-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 유입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8년에는 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, 2009년에는 3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짐.

<참고> 달러공용화 제도의 내용 및 효과

- 2000년 11월 엘살바도르 의회는 달러공용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음. 이는 환율 안정을 바탕으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환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-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2001년 1월 1일자로 美 달러를 자국통화와 함께 법정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, 동 제도에 따라 환율은 C8.75/\$로 고정되었음.
-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 후 14%에 달하던 대출금리가 6%대로 낮아져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, 물가상승률도 2% 이하로 안정되었음.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늘어나서 2004년에는 전년대비 217%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그러나 수출경쟁력 감소,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의 가격경쟁력 상실은 대미 수출이 52%(2008년 기준)에 달하는 동국 경제에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. 또한 달러공용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됨.

## 라. 정치·사회동향

### □ FMNL, 처음으로 집권 성공

- 1980년대 초 군부독재 및 빈부격차 심화에 반발한 좌익 게릴라(FMLN)가 결성되어 12년간 내전이 지속된 끝에 1992년 UN의 중재 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음. 내전 종식 이후 FMLN이 제도권 정치세력으로 진입함에 따라 정국안정을 되찾게 되었음.
- 내전 이후에 이어진 대선에서 국민공화연합(ARENA)이 4회 연속 집권하였으나, 만연한 부정부패와 개혁 지연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져 2006년 처음으로 FMLN이 집권에 성공

### □ 여당 과반수에 힘입어 안정적인 정권 구축

- 2009년 6월 당선된 마우리시오 푸네스(Mauricio Funes) 대통령은 의회 제1당인 여당 FMLN과 주요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안정적인 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이러한 여세를 몰아 2009년 말에는 조세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, 2010년 예산안 및 IMF와의 대기성 차관만기 연장 협상 등을 성공리에 추진하였음.
- 비록 여당이 의회 1당으로 84개 중 35개를 확보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는 실패하여, 주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관계로 좌익 게릴라 출신인 FMLN의 좌파성향의 인사들과 야당 핵심 인물들의 사교를 적절히 조합해야 함,



□ 경기침체로 강력 범죄 증가

- 오랜 내전으로 다량의 총기가 사회에 유포되어 전투원 출신 중 사회적응에 실패한 일부와 빈민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음.
- 미국 정부가 운영중인 해외안전건설팅위원회(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)에 의하면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서 2009년 연중 살인사건은 1일 평균 12건의 살인사건에 해당하는 4,365건으로, 전년대비 37% 증가하는 등 국내 치안이 불안한 상황임.
- 2009년 경기침체로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가 다시한번 증가세를 보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, 내전이나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발할 가능성은 낮음.

□ 미국과 중미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지속

- 전통적으로 미국과는 우호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중미 국가들 중 유일하게 이라크 파병을 실시하여 관계가 더욱 호전되었음. 이에 힘입어 미국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 동포 약 250만 명 중 비자문제가 있는 30만명이 임시보호지위를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, 범죄 척결 정책에 대한 공동지원도 기대하고 있음.
- 2004년 11월에 과테말라와 인적·물적 이동 자유화를 실시하는 등 중미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음. EU-중미 FTA 추진에 참여하는 등 지역내 통합에 적극적임.

## 마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
### □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양호하나 경제위기로 하향세

- Moody's는 2009년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및 외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로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인 Baa3에서 투기 등급인 Ba1으로 하향 조정
- S&P와 Fitch도 2009년 동국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BB+에서 한 등급 낮은 BB로 하향조정. Fitch의 경우 동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추가 하향 가능성 상존
  - OECD : 4등급('08. 6) → 4등급('09. 7)
  - Moody's : Baa3('99. 7) → Ba1('09.11)
  - S&P : BB+('01. 1) → BB('09. 5)
  - Fitch : BB+('00. 0) → BB('09. 6)

### □ ECA 및 국제금융시장의 평가는 양호한 수준

- 2009년 1월 IMF로부터 SDR 513.9백만(약 8억 달러)의 14.5개월 대기성 차관(Stand-by Loan)을 도입하였으나 자금인출은 하지 않았음. 2010년 3월 동 차관을 36개월 연장하였으며, 당분간 자금인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.
- US EXIM, ECGD 등 주요 ECA의 동국에 대한 지원 방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.
  - US EXIM : 최고부보율 적용
  - 영국 ECGD : 최고부보율 적용
  - 독일 Hermes : 단기 전액인수 가능

□ 외채는 관리가능한 수준

- 동국은 1990년 9월 파리클럽과 156백만 달러의 채무 리스케줄링 협상을 타결하였고 1993년에는 미국으로부터 450백만 달러의 채무감면을 받은 바 있음.
- 전임 사카(Saca) 정부 시기에는 외채이자 상환부담 감소와 외채 만기구조 장기화 전환 등을 통해 외채지표가 꾸준히 개선되었으나, 2008년 하반기 이후 외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. 2009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GDP의 45.2%인 95억 달러로 과중한 편이나, D.S.R.이 10% 내외로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.

□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풍부

-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,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2009년 말에는 2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.

바. 향후 전망

- 엘살바도르 경제는 정국 안정과 친시장 경제개혁, DR-CAFTA로 인한 마킬라 산업 활성화 등에 힘입어 최근 수 년간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,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됨.
- 달러공용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재정적자 확대에 의한 정부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나,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기조,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양호한

## V. 중미통합체제(SICA) 8개국 정치·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

신인도, 향후 경제전망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정치·경제상황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.